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지역사회와 상생 지속 추진"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전달

정재길 기자

승인 2025.10.14 11:06



[한국영농신문 정재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이돈문)는 9월 29일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지역 내 유관 기관이 함께 모여 참여한 행사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행사가 마련됐다.

이돈문 성주지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매년 잊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전달받은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재길 기자 ynkiler@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